

양파생산 비용절감 교육

신안군 농업경쟁력 제고

육묘요령 · 잎자르기 · 비닐피복요령 등



신안군은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양파 재배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양파 기계정식 요령과 안정적인 상자 육묘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양파 기계정식에서 가

장 중요한 육묘요령과 잎자르기, 비닐피복요령 등 실질적인 농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으며, 양파정식기의 사용방법과 취급조작요령 교육을 통해 임대 농작업기의 활용도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양파 재배면적 1,318ha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양파 주산지로 2016년부터 양파 정식기를 각 읍면 농기계임대 사업장에 배치하여 양파정식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양파기계 정식 확대를 위해 100여 농가에 종자 코팅 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양파기계 정식에 필요한 파종기 13대, 전엽기 18대, 휴립피복기 13대, 양파정식기 12대를 보급하여 양파기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밭작물 기계화를 향상을 위해 신안 주력 작목인 마늘, 양파, 대파, 시금치 기계화 작업을 위한 교육 및 시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밭작물 기계화로 농업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하반기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내달 5일까지 접수

영암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율을 유도하기 위한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지역 기업의 신청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자와 지역 기업 양쪽에

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취업자의 장기근속율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으로 전남도와 영암군이 2010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60여명을 선발하여 지원중이나, 청년과 기업들로부터 추가 모집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하반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1년차에 취업장려금으로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이 3개월간 나눠 지급,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으로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에는 근속장려금으로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이 매분기나눠 지급되고 올해부터는 4년차 지원금이 신설되어 장기근속금으로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되어 청년 취업자 1명당 당초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브랜드 슬로건 전국 공모 나서

무안군은 지난 24일부터 9월 22일 두 달 동안 도시 브랜드 슬로건 전국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항공 특화단지 조성 등 변화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도시 정체성 및 무안의 미래비전을 핵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엔 무안의 지역적 특성 및 성장 가능성 또는 미래 비전을 함축

적인 슬로건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국문 및 영문 2가지 형태의 간결한 문구 형태로 출품 가능하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금상 1편 상금 300만원, 은상 1편 상금 200만원, 동상 2편 각 100만원, 장려상 4편 50만원으로 총 8편에 대해 시상한다.

신청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www.muan.go.kr) 팝업존 및 공모전

용 사이트 위비티(www.wevity.com)에서 참가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88bum@korea.kr) 또는 무안군청 기획예산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브랜드 슬로건은 여론수렴 및 심사과정을 거쳐 12월중 수상작을 발표하며, 수상작은 무안군의 브랜드 슬로건 후보안에 적용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무안의 미래 비전 제시 및 도시 이미지 제고로 무안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위한 하절기 집중 방역

해충 서식지 사전 차단



강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모기, 파리 등 해충 개체 수 증가를 대비해 하절기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7월부터 10

월 말까지 주 5회에 걸쳐 강진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오후 6시부터 방역 작업을 추진한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연무) 소독이 있다. 연막소독의 경우 살충제에 경유를 섞어 가열·연소시켜 다향의 연기를 뿜어내는 방역 방식이다. 반면 분무소독은 살충제에 물을 섞는 연무소독과 비슷하나 가열하지 않고 약제 대로를 방역기계의 훨(FAN)을 통해 분사한다.

군 보건소는 연막소독보다 방제 원가가 저렴하고 소독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며 냄새가 나지 않고 장시

간 살충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연마 소독에 익숙해 있어 냄새와 연기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방역 효과가 좋은 분무소독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모기는 화분 받침이나 물통, 배수구, 페티어 등 고인물이 있는 곳에서 산란하는 특성이 있다. 주민들도 고인물 제거 등 해충의 서식처를 사전에 차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해양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교실 운영

카약·바다래프팅 등

진도군이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0일간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도군은 여름 휴가철 진도를 찾았으나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즐거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행복한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해양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교실을 진행한다.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은 세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진도군

의신면 초사마을에 위치한 ‘쏠비치 호텔&리조트 진도’ 인접 해변에서 운영된다.

체험교실은 1일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포함해 카약·바다래프팅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교실 희망자는 당일 현장 운영부스에서 접수하거나 전화 예약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안전한 체험을 위해 물 빠짐이 좋은 옷, 아쿠아슈즈, 모자, 선글라스, 여벌의 옷 등을 준비해 체험장으로 찾아오면 된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 어촌어항 담당 관계자는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은 정신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은 바다의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레저 스포츠 센터 등 저변을 확대해 진도군의 또 다른 관광자원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교실 예약 등은 현장부스(☎010-8836-9292)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산 마른김 첫 수출길 올라

초도 물량 1만4천 속 선적…중국 수출 활기 불어넣어



였다.

이번 선적식은 완도군 흥일식품과 중국 두원식품유한공사가 중국 상해에서 체결한 수출계약 120만불 중 초도 물량으로 향후 조미김, 김 스낵, 해조류 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이 수출 선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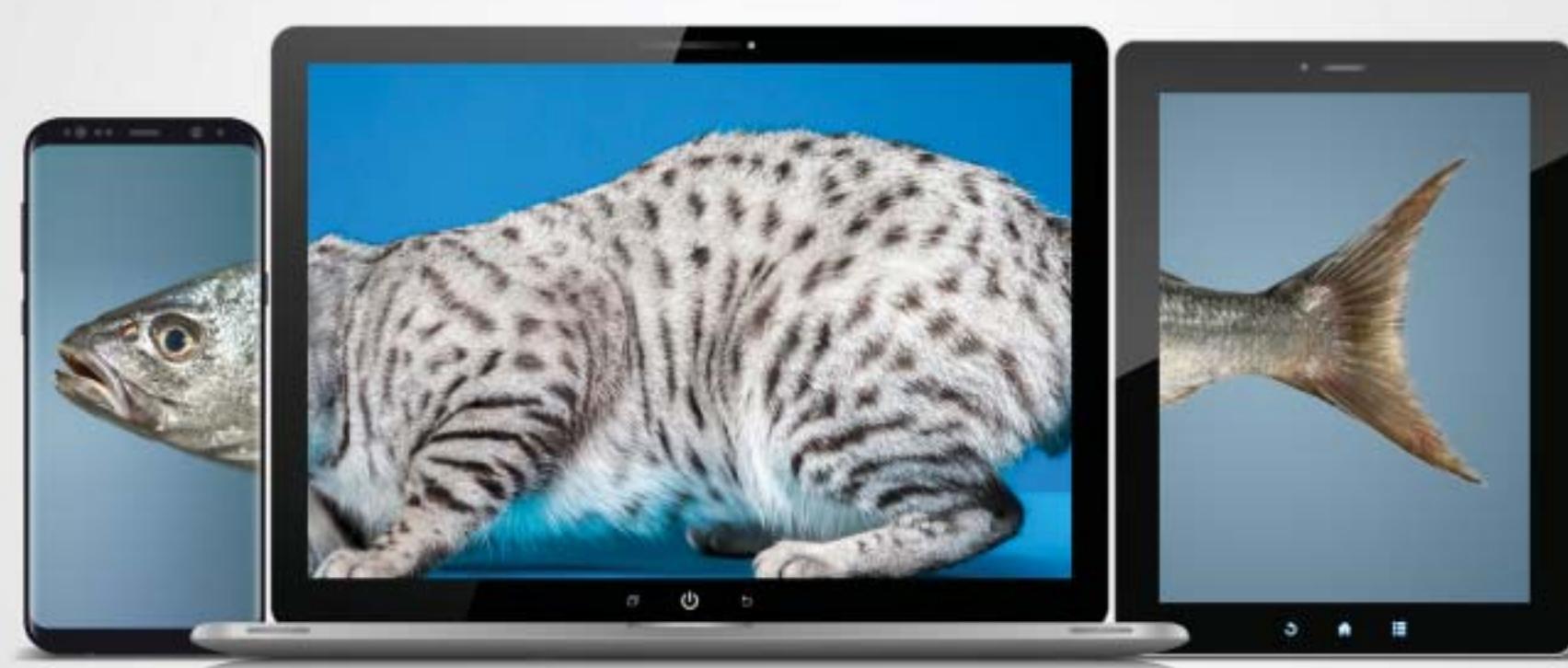
완도군은 중국 상해 수출상담회에서 총 73회의 상담을 통해 업무협약 5건 수출계약 3건 등 총 500만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완도농공단지 소재의 흥일식품(대표 김도환)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산물 가공업체로 조미김, 김자반북음, 김앤크런치, 김앤조코, 해조류 가공품 등을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원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